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특성
Characteristic of the Typhoon landfalling in the North Korean

안숙희¹⁾·김백조²⁾·박소연³⁾·박길운⁴⁾
Suk-Hee Ahn·Baek-Jo Kim·Park So-Yeon·Park Gil-Un

요 지

본 연구에서는 1951~2008년까지 58년 동안 북한에 상륙한 태풍의 빈도, 강도, 진로 및 피해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태풍 빈도는 감소하고 강도는 약해지는 추세였다. 이러한 강도 변화는 대부분의 태풍이 온대저기압 상태로 약화된 후에 북한에 상륙하여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태풍 진로는 중국과 남한을 경유하거나 서해안에 직접 상륙하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태풍 진로와의 관련성 분석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은 태풍이 중국을 경유하여 상륙할 경우 서쪽으로 확장하였고, 서해안에서 직접 상륙할 경우와 남한을 경유하여 상륙할 경우에는 북쪽으로 확장·발달하였다. 또한, 태풍 재해가 발생한 총 5건의 사례 중에서 2000년 프라피룬은 서해안에 직접 상륙하였으며 바람에 의하여 약 6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2002년 루사는 남한을 경유한 후 상륙하였으며 강수에 의해 약 50만 달러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
- 1)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연구원·(E-mail: shahn@kma.go.kr)
 - 2) 정회원·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과장
 - 3)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연구원
 - 4)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연구원

기후변화가 경남지방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강수량 변화의 통계적 특성(1)
The Impact on Climate Change on Water Resource in Gyeongsangnam-do: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ion Change(1)

박종길¹⁾·정우식²⁾·김은별³⁾·김도욱⁴⁾
Park·Jong-Kil·Jung·Woo-Sik·Kim·Eun-Byul·Kim·Do-Wook

요 지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의식이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 수자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은 생존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후변화 정보의 파악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경남지방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앞으로 수자원부족에 따른 대응방안을 기상분야와 연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핵심단어: 기후변화, 경상남도, 수자원, 강수량

-
- 1) 정회원·인제대학교 환경공학부/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교수·(E-mail: envpjk@inje.ac.kr)
 - 2) 정회원·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교수
 - 3) 정회원·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박사과정
 - 4) 기상청 뎡봉산기상관측소/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석사과정